"마트 노동자 생존권 지킬 것"

마트산업노조 출범 "인간다운 삶 실현"

대형마트 노동자들의 권리보장을 요구하는 마트산업 노동조합이 출범했다.

마트산업노동조합 준비위원회는 15일 오전 11시 롯데백화점 소공동 본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형마트 노동자들의 권리를 위해 힘쓰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김영주 민주롯데마트 노조 위원장은 "현재 대형마트는 많은 노동자들을 고용하고 있지만 그에 합당한 근무 조건을 제공하고 있지 않다"면서 "이제는 우리가 직접 힘을 합쳐 마트 노동자들의 생존권을 지켜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전수찬 이마트 노조 위원장은 "다수의 협력 업체 직원들은 직영 노동자들에 비해 자신의 목소리를 낼 수 없는 것이 현실"이라며 "모든 노동자들이 안전한 울타리 속에서 자신의 권리를 지킬 수 있도록 투쟁하겠다"고 강조했다.

김기완 홈플러스 노조 위원장도 "대형마트 노동자들은 상대적으로 저임금에, 누구에게도 존중받지 못하는 열악한 근무 환경에서 일을 해왔다"며 "이제는 마트 노동자들이 존엄 있고 당당한 노동자가 될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말했다.

이들은 이날 출범선언문 낭독을 통해 ▲마트노동자의 인간다운 삶 실현 ▲비정규직 협력업체 노동자의 조직화 ▲대형유통업체의 갑질횡포 감시 ▲최저임금 현실화 등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이날 기자회견장에서는 직접 자신의 사례를 발표하며 부당한 근로조건을 언급하는 노조원도 있었다.

권혜선 홈플러스 노조원은 "10년 이상을 협력업체 직원으로 일하며 멸시와 설움은 물론 출퇴근 감시, 무퇴직금, 무연차 등 부당한 대우를 받아왔다"며 "현장에서 협력업체 직원으로 일하는 근로자들을 위해 이 노조는 꼭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진행된 롯데마트·이마트 노조 탄압 규탄 결의대회에서는 각 대형마트의 노조탄압 사례가 언급됐다.

전수찬 이마트 노조 위원장은 "롯데마트, 이마트 모두가 조합원에 대해 부당징계, 조합 탈퇴 회유 및 압박 등 다양한 노조탄압을 진행하고 있다"며 "노조원들이 목소리를 내야만 회사가 변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날 마트산업노조 위원회가 밝힌 롯데마트의 노동조합 탄압 상황은 울산진장점 표적 징계 시도, 인천삼산점 부당노동행위 등이었다.

또 이마트의 노조탄압 현황으로는 노조간부 저성과자 만들기, 찍어내기식 부당발령 등이 꼽혔다.

이희경 롯데마트 울산 진장점 조합원은 "마트 직원이 할인 물건을 구매했다는 이유로 사측으로부터 배임과 횡령 혐의의 고소, 고발을 당했다"며 "노조를 탈퇴하라는 회사의 회유와 강요에 따르지 않은 것이 이유라고 생각한다"고 언급했다.

김상원 이마트 노조 사무국장은 "회사가 인사발령과 고과를 가지고 계속 조합원들을 압박하고 있다"며 "그간 우수캐셔 등 좋은 업무 평가를 받았던 직원이 최하고과를 받으며 갑자기 다른 부서로 발령을 받는 등 부당노동 행위로 보이는 사례들이 많았다"고 강조했다. /이성주 기자

깜찍한 수지 15일 오전 네스카페 브랜드 모델 수지가 서울 강남의 한 사무실에서 진행된 '네스카페 수지의 신선한 오피스어택' 이벤트에 참석해 직장인들에게 사인을 해주고 있다.

전북은행, 판교 금융복합점포 개점

JB금융그룹 전북은행(은행장 임용택)은 15일 성남시 판교 신도시에 금융복합점포 1호점을 개점했다.

지난해 4월 경기도 내 첫 지점인 수원지점 개설 후 두 번째로 개점하는 이번 판교 지점(지점장 윤상마)은 현대증권과 한 점포 내에서 업무를 같이 하는 금융복합지점으로 이날 개점과 함께 본격적인 업무를 시작했다.

전북은행측은 이번 금융복합지점 개점으로 은행과 증권의 연계영업으로 인한 시너지와 비용절감, 원스톱서비스 제공을 통한 고객과 금융사간의 편리성 제고, 종합적이고 효율적인 자산관리 기능 등 시너지 창출 등을 기대하고 있다.

개점행사에는 김 한 JB금융지주 회장과 임용택 전북은행장, 윤경은 현대증권대표이사, 이장휘 일동제약 감사 등 내·외빈 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성황리에 진행됐다.

전북은행 임용택 은행장은 인사말에서 "IT기업이 판교에 밀집해 있고 주거환경이 양호하여 잠재고객 유입이 기대되고 있다"며" 이번 복합지점 개점으로 경기도내 기업과 지역민들에게 필요한 자금을 적기에 지원하며 지역 주민들과 함께하는 은행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정영수기자

가습기살균제 제조사 '독성물질 동물실험 無' 주장 논란

제품위험성 몰랐다는 취지… 업무상 단순 과실로 몰아가려는 '꼼수' 지적

가습기 살균제 제조사인 옥시레킷벤키저가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한 제품을 시중에 팔기 전 독성물질에 대한 동물실험을 하지 않았다고 검찰에서 주장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 같은 주장에는 제품의 위험성을 미리 알지 못했다는 취지로, 가습기 살균제 사망사건을 업무상 단순 과실로 끌고 가려는 업체측의 의도가 깔려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옥시레킷벤키저는 가습기 살균제 사망사건의 사망자 중 70%가 사용했던 제품을 만든 회사다.

15일 검찰에 따르면 옥시레킷벤키저는 지난 2001년 가습기 살균제 발매 당시 원료 성분인 '폴리헥사메틸렌구아디닌(PHMG)'에 대한 '흡입 독성' 동물실험을 진행하지 않았다고 '가습기 살균제 피해사건 특별수사팀'(팀장 이철희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장) 조사에서 주장했다.

PHMG는 흡입시 유해한 화학물질로, 원료 제조사인 SK케미칼이 2003년 호주 국가산업화학물질 신고·평가 기관(NICNAS)에 제출한 보고서에 이 물질의 흡입 독성이 명시돼 있다.

옥시레킷벤키저 측은 동물실험을 내부적으로 검토는 했으나 당시 가습기 살균제 동물실험이 법적으로 의무화돼 있지 않아 실험을 하지 않았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진다.

검찰은 옥시레킷벤키저가 PHMG의 독성을 알면서도 동물실험을 하지 않은 것인지 등 고의성 여부를 수사 중이다.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들은 사망사건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려 하는 것 아니냐며 강력 반발했다.

피해자들은 "처음에는 자체 실험 결과를 통해 유해성이 없다고 주장하다가 지금은 또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다"며 "서로 책임을 지지 않으려고 말을 계속 바꾸고 있는 거 아니냐"고 말했다.

앞서 옥시레킷벤키저 측은 "가습기 살균제와 인체 폐손상 사이엔 인과관계가 없다"는 자체 실험 결과를 검찰에 제출한 바 있다.

검찰은 임산부와 영유아 등 143명이 숨진 가습기 살균제 사망 사건 전담 수사팀을 지난 1월 꾸려 제조사와 판매사를 압수수색하는 등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박용주 기자

도내 가계대출 감소세 전환

1월 전월대비 240억원

천정부지로 치솟던 전북도내 가계대출이 감소세로 전환했다.

15일 한국은행 전북본부가 발표한 '2016년 1월중 전북지역 금융동향'에 따르면 1월중 전북지역 금융기관 가계대출 잔액은 19조 7,637억원으로 전월만 대비 240억원 감소했다.

대출종류별로는 주택담보대출 잔액이 9조 6,863억원으로 전체 가계대출 중 49.0%를 차지했으며 금융기관별로는 1월말 주택담보대출 잔액이 예금은행은 9조 580억원(45.8%), 비은행 예금취급기관은 10조 7,057억원(54.2%)으로 집계됐다.

반면 1월말 금융기관 기업대출 잔액은 18조 3,717억원으로 전월만 대비 1,487억원 증가했다. 금융기관별로는 예금은행이 16조 2,192억원(88.3%), 비은행 예금취급기관은 2조 1,525억원(11.7%)으로 집계됐다.

한은 전북본부 측은 가계대출은 주택담보대출 상환 등에 따라 감소로 전환됐고 기업대출은 연말 일시상환 대출금의 재취급 등에 따라 증가한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이번 조사에 따르면 이 기간 전북지역 금융기간 여신은 전월에 비해 증가폭이 축소(2015년 12월+990억원→16년 1월+269억원)했다.

또 수신의 경우 예금은행에서의 지자체 재정교부금 유입 등에 따라 증가로 전환했다.

1월중 신용보증기관 보증은 전월에 이어 감소세를 유지한 가운데 제조업과 건설업은 감소했으나 도소매업은 증가한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1월중 전북지역 어음부도율은 0.79%로 전월보다 0.18%p(2015년 12월 0.61%→2016년 1월 0.79%) 상승 했다. /정영수 기자

전북테크노파크, R&D연계 지원사업 21일까지 접수

전북테크노파크는 'R&D연계 기술애로 지원사업' 1차 신청접수를 오는 21일까지 받는다.

신청 대상은 도내 매출 100억 이하 기업이며 선정되면 시제품, 시작금형 제작 및 공정개선을 지원한다.

지난해는 모두 53개 업체를 지원했고 그해에 8억8,800만원의 매출신장을 달성했다.

또 2014년 지원기업(2년차)의 경우는 61.1%가 사업화에 성공해 54억3,300만원의 매출과 33명의 고용을 창출하기도 했다. 올해는 총 3회 신청을 받아 총 50개 기업을 지원할 계획이다.

이밖에 전북테크노파크는 지원사업 참여에 막연한 어려움을 갖고 있는 영세기업들을 대상으로 '기업방문 컨설팅(방문형)' 형식의 현장방문을 따로 추진한다.

'방문형' 사업은 매출규모 20억 미만, 창업 5년 이내의 영세기업들만을 대상으로 하며, 전북테크노파크 담당자가 현장 방문하고 컨설팅을 무료로 제공하는 서비스이다.

자세한 사항은 전북R&D종합정보시스템 홈페이지(http://md.jbtp.or.kr/) 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신광영 기자

전북중진공, 중기 경영기술 컨설팅 내달 1일까지 접수

중소기업진흥공단 전북지역본부(본부장 전원찬)는 중소기업 컨설팅 지원사업을 오는 28일부터 내달 1일까지 신청접수받는다.

경영 및 기술 컨설팅은 경영기술 전 분야에 걸쳐 각 기업에 맞는 맞춤형 컨설팅을 제공하는 사업이다.

지원대상은 업력 제한 없이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이면 신청 가능하다.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은 중소기업 컨설팅 지원사업 홈페이지(www.smbacon.go.kr)를 통해 신청가능하다./신광영 기자

4.5t 이상 화물차 하이패스 이용

한국도로공사는 4.5t 이상의 화물차에 대한 하이패스 이용을 강화한다.

한국도로공사에 따르면 이달 21일부터 4.5t 이상의 화물차가 적재중량 측정 장비가 설치되지 않은 일반 하이패스 차로로 고속도로톨게이트를 통과할 경우 경찰에 고발한다.

일반 하이패스 차로를 통과하는 차량이 일평균 326대에 이르고, 반복해서 일반하이패스차로를 통과하는 차량이 늘어남에 따른 조치이다.

4.5톤 이상 화물차의 하이패스 위반 시 도로법 제78조 및 제115조에 의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된다. /신광영 기자

하이모, 군산점 신규 오픈

가발기업 하이모(대표 홍인표)는 전라도 지역 고객 서비스 강화를 위해 군산지점을 신규 오픈한다고 15일 밝혔다.

전라북도 군산시 수송동에 약 85평 규모로 자리하게 된 하이모 군산지점은 전라도 지역 내 4번째 지점으로, 100% 직영점 체제로 운영된다.

전라도 지역 내 지점 확충으로 군산지역은 물론 전북지역 인근에 거주하는 고객의 경우 가발 제품 관리를 위해 광주나 전주 하이모 지점을 방문할 필요 없이 보다 가까운 지점을 통해 긴밀한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됐다.

뿐만 아니라 지점 방문 시 스타일리스트를 통해 상시로 상담 받을 수 있어 유용하다. /이성주 기자